

2022학년도 1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2022학년도 1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CONTENTS

I. 교과 스터디

- 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3
- 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 6
 - 1. 해리포트 6
 - 2. 미치는 영원하라 10
 - 3. 어학가식가 15

II. 비교과 스터디

- 비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21
- 비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 24
 - 1. 꿈을꾸물 24
 - 2. STEM 27
 - 3. 0990 29

III. 전공 튜터링

- 전공 튜터링 완료 명단 / 35
- 전공 튜터링 우수팀 활동 사례 / 37
 - 1. 바이오믹스 37
 - 2. 통과학제리 39

IV. 리딩 리더스

- 리딩 리더스 완료 명단 / 43
- 리딩 리더스 우수팀 활동 사례 / 44
 - 1. 책과맞선 44
 - 2. 책먹는차약이 47

V. 영어 클럽

- 영어 클럽 완료 명단 / 51
- 영어 클럽 우수팀 활동 사례 / 52
 - 1. 달려라 영어리쉬 52
 - 2. 고고고무비무비 55

CONTENTS

VI.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59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 60
 - 1. 화학 그것이 알고 싶다 60
 - 2. 다다 62
 - 3. 약치치치 64

VII.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완료 명단 / 71
-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활동 사례 / 75
 - 1. Stella&Sally 75
 - 2. 갓생살기 77
 - 3. 미어캣들 81

VIII. 하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하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85
- 하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 86
 - 1. 디마짱 86
 - 2. BIPS 88

2022 학년도 1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I. 교과 스터디

- 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1. 해리포트
 2. 미치는 영원하라
 3. 어학가식가

○ 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해리포트 (우수)	채*정	스포츠의학과
	강*서	스포츠의학과
	김*현	스포츠의학과
	김*서	스포츠의학과
	김*은	스포츠의학과
	현*용	스포츠의학과
미치는 영원하라 (우수)	이*준	미술치료학과
	임*경	미술치료학과
	박*현	미술치료학과
	황*정	미술치료학과
어학가식가 (우수)	서*정	미술치료학과
	조*송	식품생명공학과
	강*교	식품생명공학과
	이*서	식품생명공학과
생약학 마스터	최*지	식품생명공학과
	이*영	약학과
	김*현	약학과
	송*영	약학과
	유*리	약학과
드림스کم트루	최*우	약학과
	채*은	약학과
	김*우	약학과
	이*영	약학과
	이*연	약학과
	임*정	약학과
	정*지	약학과
병태마스터	김*현	약학과
	강*망	약학과
	안*영	약학과
	송*영	약학과
	김*희	약학과
공부대찌개	유*재	의생명과학과
	서*원	의생명과학과
	유*정	의생명과학과
	정*민	의생명과학과
	김*원	의생명과학과
약물중독자들	김*정	약학과
	정*희	약학과
	정*지	약학과
	유*리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김*정	약학과
	김*본	약학과
4Team	이*희	식품생명공학과
	손*재	식품생명공학과
	안*일	식품생명공학과
오일남	신*철	약학과
	이*우	약학과
	김*영	약학과
	이*연	약학과
말하는 감자들	허*현	약학과
	송*영	시보건의료학부
	성*현	시보건의료학부
약국 정복기	윤*연	약학과
	이*주	약학과
	김*미	약학과
	박*연	약학과
다같이해낼조	최*희	약학과
	오*은	식품생명공학과
	김*은	식품생명공학과
	배*은	식품생명공학과
	안*영	식품생명공학과
	이*영	식품생명공학과
웅친프	박*지	식품생명공학과
	한*리	약학과
	최*재	약학과
	안*우	약학과
	목*승	약학과
	김*윤	약학과
으악과악	장*린	약학과
	김*윤	약학과
	배*현	약학과
살려조	윤*연	의생명과학과
	이*은	의생명과학과
	이*은	의생명과학과
	한*성	의생명과학과
	이*훈	의생명과학과
	홍*서	의생명과학과
소집사	이*혜	상담심리학과
	임*민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약치마스터	서*연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장*영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작심 90일 스터디	임*희	미술치료학과
	최*우	미술치료학과
	김*인	미술치료학과
발정병	신*진	상담심리학과
	곽*정	상담심리학과
	송*인	상담심리학과
	인*숨	상담심리학과
	이*경	상담심리학과
파이오니어	이*우	바이오공학과
	심*미	바이오공학과
	김*중	바이오공학과
	김*은	바이오공학과
인왜병	김*경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연	약학과
	이*민	약학과
호그와트	이*은	의생명과학과
	양*영	의생명과학과
	윤*정	의생명과학과
	이*견	의생명과학과
노인과 간호	김*현	간호학과
	김*서	간호학과
	김*민	간호학과
숨을 쉬자 호.호.호	김*지	간호학과
	김*현	간호학과
	김*민	간호학과
	김*서	간호학과
술 목자	조*윤	의생명과학과
	권*르	의생명과학과
	권*라	의생명과학과
	박*준	의생명과학과
	양*정	의생명과학과
약치포터	이*훈	약학과
	김*솔	약학과
	김*영	약학과
	이*연	약학과
	이*현	약학과
	조*정	약학과
생명 스터디	정*석	식품생명공학과
	신*연	바이오공학과

○ 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해리포트(해부학 리포트)

- 학과: 스포츠의학과
- 팀원: 채*정 강*서 김*현 김*서 김*은 현*용
- 학습과목: 해부학
- 학습장소: Discord
- 학습 기간: 2022.05.05. ~ 2022.06.0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6	22:00 ~ 24:00	Discord	근육의 Origin, Insertion, Action, 특징 1) 해부학의 기본 개념 1 2) 해부학의 기본 개념 2 3) 뼈의 기능과 역할 4) 관절의 이해 2. 김*은이 준비한 1~4강 퀴즈 풀기 3. 김*은이 준비한 '무지 외반증' 칼럼 피드백하기 4. 기능해부학 9~11주차 복습하기
05/13	22:00 ~ 24:00	Discord	1. 근육의 Origin, Insertion, Action, 특징 1) 척추관절 2) 어깨관절 3) 팔꿈치, 손목관절 2. 현*용이 준비한 5~7강 퀴즈 풀기 3. 현*용이 준비한 '무릎 구조와 질환' 칼럼 피드백하기 4. 기능해부학 12주차 복습하기
05/20	22:00 ~ 24:00	Discord	1. 근육의 Origin, Insertion, Action, 특징 1) 엉덩관절과 천장관절 2) 무릎관절 3) 발목관절 2. 김*서가 준비한 8~10강 퀴즈 풀기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 김*서가 준비한 ‘누구나 겪는 손목통증, 의심해볼 수 있는 질환은?’이다. 4. 기능해부학 12주차 복습하기
05/26	22:00 ~ 24:00	Discord	1. 근육의 Origin, Insertion, Action, 특징 1) 상부/중부/하부 승모근, 전거근 2) 견갑거근 소/대능형근, 소흉근 3) 회전근개(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4) 전면/중간/후면 삼각근, 오혜완근 5)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 2. 김*현이 준비한 11~15강 퀴즈 풀기 3. 김*현이 준비한 ‘회전근개 구조와 어깨 질환’ 칼럼 피드백하기 4. 기능해부학 13주차 복습하기
06/05	22:00~24:00	Discord	1. 근육의 Origin, Insertion, Action, 특징 1) 상완이두근, 상완근, 상완삼두근, 주근 2) 흉쇄유돌근, 사각근, 두판상근, 경판상근 3) 두장근, 경장근, 후두하근 4) 최장근, 장늑근, 극근, 반극근 5) 요방형근, 외복사근, 복직근, 내복사근 2. 김*은이 준비한 15~20강 퀴즈 풀기 3. 채*정이 준비한 ‘척추의 구조와 추간판 탈출증’ 칼럼 피드백하기 4. 기능해부학 14주차 복습하기

○ 활동 소감

▶강*서

이번 스터디를 계기로 기능 해부학의 기초를 잘 다룬 것 같다. 해부학은 공부를 해도 해도 까먹고 어렵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매주 스터디를 하면서 하기 싫고 지쳐도 동기들끼리 하니깐 더욱더 잘하고 계획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냥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퀴즈도 서로 만들어서 내고 칼럼까지 제작하면서 지식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학교 수업 중에 배우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전공 공부를 동기들과 같이 하면 서로 동기부여도 잘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게 되었고 칼럼 제작을 해보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칼럼을 만드는 법 또한 배우게 되면서 융합적으로 다 도움이 된 스터디였던 것 같다. 지금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김*현

스포츠의학이라는 분야에 있어 기능 해부학은 가장 중요한 기초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그에 따른 움직임을 생각하여 운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2학년 수업에 기능 해부학 강의가 있었고, 학과 동기들끼리 수업 중 어려웠던 부분이나 심화적인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시작한 스터디 활동은 한 학기 동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단순히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퀴즈를 만들어 맞춰보고, 하나의 주제로 칼럼을 제작해 본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전공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동기들과 함께 공부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서

스포츠의학과에서 해부학이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 해부학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특히 학과 동기들과 함께 매주 해부학 퀴즈도 준비하고 또 준비한 퀴즈를 맞히면서 복습도 하고 학습한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어서 효율적인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칼럼 만들기 활동을 하며 기능 해부학 내용을 토대로 그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까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칼럼은 두고두고 자료가 남는 활동이라 스터디가 끝나더라도 동기들과 칼럼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다음에 또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고 싶을 때 동기들과 스터디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고 싶다.

▶김*은

1학년 때 해부학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접해보는 학문이라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해부학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부학 스터디를 하면서 키워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 스터디를 시작했다.

동기들과 같이 학교 기능 해부학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퀴즈를 서로 만들어서 풀어보기도 하고, 심화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니 점점 해부학과 친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또한 우스갯소리로 칼럼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자 해서 시작한 해부학 칼럼 만들기도 다양한 해부학적 내용, 질환 등을 직접 찾아보며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니 내가 준비한 칼럼 아니라도 내용을 금방 익히고 기능 해부학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해부학 스터디였지만 해부학이라는 학문과 친해지며 재미를 찾게 되었고 해부학적 내용을 보게 되면 전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꾸준히 해부학 공부를 하고 싶고, 더욱 심화된 내용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 스터디원들과 계속해서 스터디 활동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채*정

작년에는 혼자 공부하느라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양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매주 학교 수업과 스터디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쉬운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학습하여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강의를 바탕으로 동기들이 만든 퀴즈를 풀고 퀴즈를 내가 만들어 보는 것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또 활용하여 칼럼을 만들면서 해부학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질병과 검사법, 치료법을 찾아보면서 더 잘 기억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막연하게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닌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더욱 흥미로웠던 것 같다. 다음 학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용

스포츠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기능 해부학에 관련된 스터디를 하며 학업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매 학기 해부학을 배웠지만 쉽게 이해와 암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헛갈리는 부분을 동기들과 이야기하며 확실하게 알게 된 것도 많았다. 또한 매주 칼럼 제작을 하며 근육과 뼈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인스타그램 공유를 통해 다른 스포츠 의학 전공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다.

스터디가 처음이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이 있었지만 같이 활동한 동기들이 서로서로 잘 이끌어가며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동기들에게 고맙다.

팀명 : 미치는 영원하라

- 학과: 미술치료학과
- 팀원: 이*준, 박*현, 임*경, 황*정, 서*정
- 학습과목: 성격심리학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5.03. ~ 2022.06.1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3	19:00 ~ 21:00	ZOOM	<p>정신역동(정신역학)은 힘과 움직임을 뜻함. 어느 성격이론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며 Frued 이론에서 인간은 한정된 양의 에너지를 가진 닫힌 체계이기 때문에, 밖에서 에너지가 추가될 수 없고, 기존의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다.</p> <p>성격의 구조는 원초아(원초적 자아), 자아(원초아와 외부세계를 중재), 초자아(자아로부터 분리된 자아)로 구분되고, 서로 상호작용한다. 또한, 불안은 집행자 자아가 원초아, 초자아 및 현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EO 발생하는 것이다.</p>
05/10	18:55 ~ 20:55	ZOOM	<p>Adler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관계들에서 책임면제를 요구하는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ung은 Freud와 Adler의 견해 차이를 내·외향성으로 설명했는데, 내향적인 모든 행동의 원인을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찾았다면 외향은 '밖(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아德勒의 개인심리학에서 '개인'의 의미는 사회·집단에 대비한 개체보다는 '나눌 수 없는'전체성을 의미한다.</p> <p>인간을 분해할 수 없는 자아일치 된 통합된 실체로 보았으며 사회생태적 체계 속의 한 구성요소로 보았다.</p>
05/24	19:10 ~ 21:10	ZOOM	<p>Jung의 리비도 개념은, 성적 에너지보다 훨씬 광범위한 생명 에너지로 이해되고, 무의식은 억압된 충동들이 갇혀 있는, 방어/승화 되어야 하는 위험한 세력이 아닌 생명의 원천이며 창조적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Jung의 심리학적 유형론은 의식의 일반적 태도(외향성&내향성), 기본기능(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 조합된 8가지 유형이며, 의</p>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식과 무의식의 대극이 심해질 경우 억압된 무의식 성향이 꿈과 신경증 증상들을 통해 표현된다고 보았다.
05/31	19:05 ~ 21:05	ZOOM	<p>무의식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은 자극을 지각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강도 또는 제시시간 아래로 제시하는 ‘역하지각’ 절차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완화시키는 자극을 제시하는 역하 정신역동 활성화 연구가 많이 행해진다.</p> <p>Wegner의 ‘흰 곰 실험’ 시리즈를 통해 어게하려 할수록 더 생각난다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사고 억제, 자동적 심리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Freud의 전의식의 심리 과정에 집중하였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저번 차시에 학습한 내용들로 간단한 퀴즈를 출제하여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다.</p>
06/07	19:00 ~ 21:00	ZOOM	<p>특질은 일관된 방식들로 행동, 생각하거나 느끼는 내적 경향들로서, 보통 사회/정서적인 측면의 넓은 개인차들을 서술한다. 성격 특질들은 많은 피험자들에게 실시한 객관적 성격 검사들에 나온 자료를 요인 분석하여 얻어지는 요인이다.</p> <p>Allport는 성격이 특질로 구성된다고 보았지만,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구성개념으로 보는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났다. Cattell은 성격 기술행용사들을 토대로 요인 분석하여 35개의 표면 특질을 얻고, 16개의 근원특질을 찾아내었으며, Eysenck도 요인분석법에 의지하여 외/내향성, 신경증 성향, 정신병 성향의 3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 모델을 제안하였다.</p>
06/17	21:00 ~ 23:00	ZOOM	<p>Costa와 Mcrae는 전통적인 질문지 방법을 사용하여 처음에 신경증성향(N), 외/내향성(E), 체험개방성(O)의 세 요인을 발견하였으나, 사전접근에서 나온 “Big Five”를 자신들의 틀과 연결시켜 호의성(A)와 양심성(C)를 추가한 5요인 해법을 선택하였고, 성격질문지에서 각각의 요인은 6개씩의 단면을 지니고 있다. 행동의 안정성, 즉 연속성에는 네 가지 유형(절대적, 차이, 개인 내적 연속성, 일관성)이 있으며, 외현적 행동은 달라져도 개인 내 특질 패턴이나 그 밑에 깔린 구조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p>

○ 활동 소감

▶이*준

이번 학습법 소모임 교과 스터디에서 전공과목인 '성격심리학'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등 다양한 심리학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겐 성격심리학 과목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었습니다.

본래 저는 다 같이 공부하는 방식이 집중이 잘되지 않고, 잡담을 많이 하게 되어 혼자 공부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서로가 하나의 파트를 맡아 소모임을 진행하기 전 미리 공부하고, 학습한 내용을 팀원들에게 설명해주고, 듣고 이해하며 학습하니 잡담을 하는 시간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었고, 학업적인 능력은 향상되었습니다. 내가 맡은 부분을 팀원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내용 학습이 필수적이었고, 혼자 공부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던 제게 맞는 공부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줬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맡은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책임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습법 소모임에서 처음으로 조장을 맡게 되어, 소모임을 이끌어 나가야한다는 생각에 부담도 느꼈고, 잘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었지만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같이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장인 제가 소모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팀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소모임을 만들어 나가며 의미 있고 보람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

이번 교과 소모임을 전공과목인 '성격심리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 과목이라 공부하기가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처럼 소모임을 진행해보는 건 어떤지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한 번 더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소모임에서 느낀점이 많아서 이번 소모임 때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소모임 시간을 알차게 보내보자고 이야기를 모으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공부를 충분히 해서 숙지해 와야 했고, 설명하면서 친구들의 이해 또한 도와야했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모임 또한 값지고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그때도 소모임을 통해 전공과목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황*정

이번 교과 스터디 소모임을 통해 전공과목인 성격심리학을 학습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아직 저와 맞는 공부법을 제대로 확실하게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할 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작정 외우면서 공부하곤 했지만 이런

공부법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외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헛갈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조원들과 함께 학습하며 서로에게 설명을 하며 듣고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 맞는 공부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자들의 이론과 기법까지 학습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을 질문과 설명을 통해 도와주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학습 성취도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퀴즈를 통해 공부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출제를 위해 공부하며 문제를 맞추면서 틀린 문제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거나 질문하여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았으며 서로 공부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서 대면일 때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이 아닌 실제 대면으로 만나서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어떤 점이 부족하며 무슨 부분에서 유의하면서 공부해야 하는지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법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학습법을 찾아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임*경

‘성격심리학’이라는 전공 이론 과목을 혼자서 학습해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습법 소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학습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학습이 도움이 될지,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을지 등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기를 진행할수록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학습했다면 저는 아마 그저 이론들을 달달 외우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법 소모임을 통하여 다른 친구들의 발표와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문을 나누며 토론 형식의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형식의 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습하니 그저 이론을 암기했을 때와는 다른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지나칠 뻔 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었으며, 모르는 부분은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또, 제가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은 느껴졌지만, 그런 부담감이 어느새 책임감으로 변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을 하며 발표 준비를 하니 더 자세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론적 학습뿐만 아니라 발표에 대한 자신감까지도 얻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소모임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퀴즈 활동이었습니다.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직접 퀴즈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었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게임 형태로 진행하여 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학습법을 활용하여 즐겁게 친구들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면으로도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

이번 학습법 소모임은 작년에 진행했던 학습법 소모임을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공부법을 시도해보고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격심리학’은 과학적인 부분과 추상적인 심리학 이론이 섞인 과목이라 이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는데 있어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조원들과 함께 다양한 학습법 탐구를 통해 가장 유용한 학습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주 소모임 마지막 시간에 하는 퀴즈 풀기 활동을 통해 복습을 하니 따로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지 않아도 소모임 시간에 복습을 할 수 있어서 공부할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학습법은 성격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팀명 : 어학가식가

- 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팀원: 조*송 강*교 이*서 최*지
- 학습과목: 식품가공학
- 학습장소: ZOOM, 미래관 302호
- 학습 기간: 2022.04.18. ~ 2022.06.1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8	17:00 ~ 18:30	미래관 302호	'2022-1 식품가공학' 1~4주차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복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다.
04/22	18:00 ~ 20:00	ZOOM	'2022-1 식품가공학' 5~7주차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복습하고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작성한다. 또한, 답안을 직접 작성해 보며 중간고사를 대비한다.
05/09	17:00 ~ 18:30	미래관 302호	'2022-1 식품가공학' 9~10주차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복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다.
05/23	17:00 ~ 18:30	미래관 302호	'2022-1 식품가공학' 11~12주차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복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다.
06/06	18:00 ~ 20:00	ZOOM	'2022-1 식품가공학' 13~14주차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복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다.
06/10	18:00 ~ 20:00	ZOOM	'2022-1 식품가공학' 주요 내용을 복습하고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작성한다. 또한, 답안을 직접 작성해 보며 기말고사를 대비한다.

○ 활동 소감

▶조*송

‘2022-1 소모임’ 활동이 모두 종료되었다. 나에게 이번 소모임 활동은 3번째 활동이었는데, 이번 소모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비대면으로 학습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여 소모임 활동을 자리잡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만큼 학습을 해야 하는 시간을 많이 뺏겨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모임 활동에서는 지난 기억을 살려 빠르게 학습 개요를 잡고 목표를 설정하여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과 공부를 할 때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결정적으로 기말시험에 함께 공부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어서 좋았다. 또 시험을 보면서 팀원들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값졌고, 다 같이 설정한 우리의 공부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큰 자신감과 행복감, 부딪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만약 다음 학기에도 소모임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번 활동 때 했던 공부 방법을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학기의 경우 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 간 학습 시간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에서 함께 학습을 진행할 장소가 고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모임 때는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함께 학습할 강의실이나 장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원활히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위 소모임 활동을 다른 학부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물론 혼자 학습을 하는 것도 자신의 공부방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하나의 주제 혹은 목표를 설정하여 도달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시험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고, 나아가는 학습 과정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나의 공부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면 위 소모임 활동을 통해 나와 꼭 맞는 공부방법을 찾고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교

이번 소모임을 함께 하는 동기들과 2020년때부터 매년 1회씩 소모임을 했지만, 이번 소모임은 코로나19가 풀려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 일단 수강하는 전공 과목이 비대면에서 대면 수업으로 바뀌어 교수님의 강의를 영상으로 돌려볼 수 없어 매 수업시간 더욱 집중을 해야 했고, 그만큼 소모임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다.

처음엔 수업이 대면으로 바뀐 점을 우려하였으나, 소모임 팀원들과 시간을 맞추어 수업이 끝난 당일에 수업 내용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복습하니 기억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았다. 항상 비대면(ZOOM)을 통해 소모임을 진행해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소모임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같은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잠시 줄거나, 다른 생각을 하여 필기를 놓치는 일이 허다한데, 각자 부족한 부분을 서로에게 부탁하며, 필기를 보충하고 또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대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방과 후 큰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 따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아도 교내에서 곧바로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소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팀원들과의 학습법 공유를 통해 더 자극 받으며 나 스스로를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런 기회가 다음 학기에도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소모임을 진행하고 싶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기들과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협업하며 학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서

첫 전면 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반복 학습과 내 집중시간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비대면의 장점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아야했다. 녹화 강의와 다르게 내가 놓치는 부분이 점점 늘게 되었고, 피곤한 날일 경우 중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효율적인 공부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과는 다른 소모임을 운영하고자 했다. 2021년 2학기에 진행하였던 '미생식생' 소모임 동기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모임을 기획해보았다.

대면으로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해주시거나, 추가로 설명해주신 부분을 교안을 보며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면 수업이 많아지게 되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해진 만큼 소모임이 진행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용을 복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며, 함께 시험 대비를 하며 '가공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 다시 한번 소모임을 진행하게 된다면, 요점정리 노트를 만들어 공유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교안에 서로가 필기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활동이었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게 된다면 시험 기간 및 추가적인 공부, 연구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학기 초부터 미리 소모임 모집을 진행해주셨으면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교과 스터디의 경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대비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비의 경우 비효율적인 활동이 진행되며, 몰아서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소

모임 일정에 대해서 빠른 공유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최*지**

이번 1학기에도 학과 동기들과 함께 식품 가공학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학습법 소모임을 한지 1년 반이 되는 것 같다. 1학년 동계방학을 시작으로 꾸준히 해왔는데, 그동안 팀원 모두가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꼼꼼한 학습을 이어오기에도 쉽지는 않았지만 해오다보니 이제는 어느덧 안 하면 허전한 활동이 된 것 같다. 다양한 소모임을 진행해오면서 특히 이번 학기의 경우, 드디어 대면 소모임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코로나19도 완화가 되었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재미도 있었고, 동기들과 소소하게 함께 으샤으샤 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특히 뿌듯했다.

그리고 식품 가공학이 워낙 긴 호흡의 강의인 만큼 내용에 대해서 서로 놓치는 부분이나 필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체크에 대해서 소모임 시간을 활용해 팀원들과 공유했다. 이런 부분이 소모임에 있어서 특히나 장점인 것 같다. 또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가볍게 카톡을 통해서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

이렇게 학습법에 대한 동기들과의 공유와 교류를 해오면서 서로의 공부 방법이나 정리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익숙함이 생겼는데, 다음 소모임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특히나 이번 학기에는 전공 수업 팀플도 많았었는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소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서로 도움도 많이 준 팀원들이 고맷다.

2022 학년도 1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II. 비교과 스터디

- 비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비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1. 꿈을꾸물
 2. STEM
 3. 0990

○ 비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꿈을꾸물 (우수)	신*경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렬	의료홍보미디어학과
STEM (우수)	박*서	바이오공학과
	이*혁	시보건의료학부
0990 (우수)	김*영	데이터경영학과
	김*음	데이터경영학과
	이*원	데이터경영학과
	정*진	데이터경영학과
PPT제왕	이*연	약학과
	김*우	약학과
	이*영	약학과
	임*정	약학과
	정*지	약학과
	채*은	약학과
토익 900+	박*원	상담심리학과
	이*현	상담심리학과
	임*민	상담심리학과
	이*혜	상담심리학과
A+의 길이 연리지(連理枝)	이*지	의생명과학과
	최*주	의생명과학과
	홍*연	의생명과학과
CHARLIE'스의 초콜릿 북클럽	이*한	스포츠의학과
	유*주	스포츠의학과
	이*주	스포츠의학과
	이*건	스포츠의학과
	이*현	스포츠의학과
	김*성	스포츠의학과
	옥*영	스포츠의학과
Enable: 이너블	정*나	바이오공학과
	이*우	간호학과
	안*나	상담심리학과
	김*지	바이오공학과
	이*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팀명	팀원	학과
영차영차	강*기	약학과
	강*관	약학과
	임*식	약학과
	최*혁	약학과
조팩대손	손*민	스포츠의학과
	양*희	스포츠의학과
	윤*진	바이오공학과
	김*규	상담심리학과
지하주	장*린	약학과
	김*윤	약학과
	배*현	약학과
탈러탈러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서*연	약학과
	장*영	약학과
글로벌 C	김*미	약학과
	윤*연	약학과
	이*주	약학과
	박*연	약학과
	최*희	약학과
약컴~	김*희	약학과
	김*연	약학과
	김*경	약학과
	김*희	약학과
	이*민	약학과
갓생마케터	조*현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한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편*희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진격의 토익	정*경	약학과
	이*혜	약학과
	류*우	약학과
약hola	이*현	약학과
	김*솔	약학과
	박*린	약학과
	원*웅	약학과
	이*연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현친프	목*승	약학과
	김*연	약학과
	이*민	약학과
	최*재	약학과
990가보자고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민*기	약학과
	박*설	약학과
	이*지	약학과
	한*훈	약학과
GO김들	고*민	데이터경영학과
	김*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빈	데이터경영학과
Bric	박*민	의생명과학과
	김*길	의생명과학과
	정*민	의생명과학과
	김*주	의생명과학과
ES	안*석	바이오공학과
	연*준	바이오공학과
5학년과 편입생들	김*정	데이터경영학과
	박*주	데이터경영학과
	정*원	데이터경영학과

○ 비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꿈을꾸물

- 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학팀원: 신*경 이*렬
- 학학습주제: 2022 환경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준비
- 학학습장소: 대면
- 학학습 기간: 2022.04.18. ~ 2022.06.24.
- 학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4	14:00 ~ 16:00	대면	<p>학습목표는 전반적인 방향설정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진행 과정과 방식은 대면으로 만나 공모전 탐색, 공모전 선정/회의 일자 및 앞으로의 계획/아이디어 회의를 하였으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간단하게 첫 번째 공모전 아이디어 회의도 진행하며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p> <p>5/4 1차 아이디어 회의</p> <p>역할분담 - 이슬린 - 신규경 -</p> <p>회의결과 - 1화 - 514 ② 2화 - 519 ② 3화 - 513 ② 4화 - 5화 - 6화 -</p> <p>공유건 - ① 2022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공유건 ② 2022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https://www.wevity.com/?c=find&s=1&gbn=viewok&gp=1&ix=62358</p> <p>②  ③ </p>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7	22:00 ~ 24:00	비대면	<p>학습목표는 아이디어 회의 및 기획서 작성으로,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구체화시키고 기획서를 작성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진행 과정과 방식은 비대면으로 서로 자료를 찾고 공유하며 기획서 내용을 작성하고 피드백하였다.</p>
05/14	22:00 ~ 24:00	비대면	<p>학습목표는 기획서 작성 및 제출로, 최종적으로 기획서를 마무리하고 제출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 진행 과정과 방식은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발표자료를 제작하였다.</p>
06/21	16:00 ~ 20:00	비대면	<p>학습목표는 두 번째 공모전 선정 및 아이디어 회의이다. 진행 과정과 방식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위비티 공모전 사이트에서 공모전을 선정하여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며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p>
06/23	19:00 ~ 21:00	비대면	<p>학습목표는 기획서 작성 및 제출으로, 기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완성하였으므로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 진행 과정과 방식은 비대면으로 파트를 분배하고 화면 공유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p>

○ 활동 소감

▶이*렬

공모전과 경진대회를 참가하는 것은 항상 재밌었다. 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유와 근거를 종합해 하나의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상을 타지 못한다면 아쉽긴 하지만 아이템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여러 도전을 해보며 새로운 시각을 넓혀보려고 노력하겠다. 또한, 내가 좋아했던 여행지인 제주에서의 경진대회는 마치 휴가를 나온 듯한 기분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다. 여기서 얻은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자.”이다.

▶신*경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려워하는 데이터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경험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환경과 사람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은 내가 데이터를 통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모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팀원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팀 활동의 의미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며 상호보완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또한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준비과정을 세세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며, 결과물을 다시 정리해보면서 다음에 또 공모전에 나가게 되었을 때 참고해서 조금 더 발전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활동을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좋은 경험이자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팀명 : STEM

- 학과: 바이오공학과, AI보건의료학부
- 팀원: 박*서 이*혁
- 학습주제: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학
- 학습장소: 교내외, ZOOM
- 학습 기간: 2022.04.18. ~ 2022.06.2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1	17:00 ~ 18:30	학생식당	진로 고민 공유 및 구체적인 스터디 방향성 정하기 1) 2022 바이오코리아 전시회 참여 2) 2022 CHA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
05/13	12:00 ~ 15:00	강남 코엑스, 바이오코리아 전시회	바이오코리아 참여 기업 견학 및 진로 탐색 1) 전시회 부스 운영 기업 탐색 및 관련 정보 습득 2) Cell TheP, Licote, 서울바이오허브, PEOPLES HEALTH 관련 팸플릿과 사이트 조사 및 보건데이터, 플랫폼에 주목
05/27	12:30 ~ 16:30	ZOOM, 미래관 강의실	CHA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획안 작성 및 수정 1) 역할 분담하여 각자 자료 조사 (통계사이트 조사) 2) 기획안 1차 작성 및 로고 제작 (MEnowpose)
06/09	10:30 ~ 13:30	ZOOM, 미래라운지	CHA 아이디어 경진대회 발표 및 결과 발표 1) BIPLUG 앱 구현 및 PPT(망고보드) 구상 2) PPT 제작 및 발표
06/21	21:30 ~ 23:00	ZOOM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계 이해 및 나의 진로(입지) 탐색 1) 직접 질문 제작, 조사 후 답변 작성 2) 진로 방향성 구체화하기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처음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소모임을 운영할 생각이었던 당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했었다. 그러나 팀원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정할 수 있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다. 특히 데이터와 관련되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로 디지털헬스케어가 발전하고 있는 사회인 만큼 데이터를 이해하고 구축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소모임을 통해 전반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도메인 지식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원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바이오코리아와 같이 실무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견학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단순히 이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도 함께 학습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감명받았던 기업들을 참고하여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CHA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였다.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필수적인 앱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정 자체도 의미 있고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결과 또한 대상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더 가치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부분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 비교과 소모임을 통해 우리의 진로에 대해 설계할 수 있었다. 더불어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생각을 습득하게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 속 우리가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더 심화적인 내용은 추후 소모임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볼 생각이다.

팀명 : 0990

- 학부: 데이터경영학과
- 팀원: 김*영 김*음 이*원 정*진
- 학습주제: 토익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4.30. ~ 2022.06.2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30	10:30 ~ 13:30	비대면	본격적인 학습법 소모임을 하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교재 확인 및 학습 방향과 상세 일정을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며, 6월 12일 토익 시험을 팀원들 모두 접수하였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는 팀원들과 함께 토익 시험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제 토익 시험 시간인 2시간에 맞춰 LC부터 RC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다. 문제를 풀어 본 다음에는 각자 채점을 한 뒤에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나 어려워했던 문제를 함께 토론하며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학습을 하였다.
05/4	18:00 ~ 19:00	대면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도 쉬지 않고 토익을 위해 달려온 팀원들의 재충전 시간을 위하여 한강 공원에서 치킨과 떡볶이를 먹으며 단어 시험을 보았다. 2회차 담당 팀장이 해커스 토익 보카 DAY 1-7을 범위로 하여 시험지를 제작해오고, 팀원들은 이를 풀어본 후 각자 채점을 하였다.
05/15	14:00 ~ 16:30	비대면	3회차 모임에서는 모의고사 TEST 5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1회차 모의고사 때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개선하고자 유튜브로 토익 시간 타이머를 켜두고 모의고사를 풀어보았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의논해보았다. 또한 팀원들 모두가 온전히 2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30분-40분-50분... 점점 시간을 늘리며 집중력을 키우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는 훈련을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를 팀원들 각자 개인 공부 습관에 적용해보기로 하였다.
05/18	12:30 ~ 13:30	대면	4회차 담당 팀장이 해커스 토익 보카 DAY 1-15를 범위로 하여 시험지를 제작해오고, 팀원들은 이를 풀어보았다. 그리고 각자 채점을 하고 나서 총 몇 문제를 틀렸는지, 향후 단어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에 틀린 단어를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공부했다.
05/28	10:30 ~ 13:00	비대면	5회차 모임에서는 모의고사 TEST 6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학습 방법은 3회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공유해둔 타이머에서 알람이 울리면 채점을 해보고, 무엇이 어려웠는지 또는 헷갈렸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5회차 모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토익을 본 경험이 있는 팀원들이 토익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며 5회차 모임을 마무리 지었다.
06/02	16:00 ~ 17:00	대면, 비대면	6회차 담당 팀장이 해커스 토익 보카 DAY 1-22를 범위로 하여 단어 시험을 출제해오고, 이를 팀원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람은 등교하는 날이 아니라서 줌을 통해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방과 후에 함께 모여서 시험을 보았다. 시험 출제 유형은 한 가지로, 한글로 단어의 뜻을 적는 문제였다. 시험을 다 본 후에 각자 채점을 하고 서로 소감 및 피드백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셔들을 타러 가야 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06/07	12:30 ~ 13:30	비대면	7회차 담당 팀장이 해커스 토익 보카 DAY 1-30을 범위로 하여 단어 시험을 출제하고, 이를 팀원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시험 유형은 빈출 단어를 위주로 한글 뜻을 적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 유형은 Part5처럼 문맥에 맞는 단어를 빈칸에서 골라 적는 것이고, 세 번째 시험 유형은 단어와 뜻을 연결하는 유형이었다. 단어 시험을 마친 뒤에 소감을 나누었고, 다가오는 토익 시험을 위해 부족한 Day를 복습하기로 약속하며 7회차 모임을 마쳤다.
06/11	10:30 ~ 13:00	비대면	8회차 모임에서는 모의고사 TEST 7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학습 방법은 5회차 모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회차 모임에서 약속했던 집중력 연습과 환경 적응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훈련, 그리고 시간 배분 연습을 한 덕분에 5회차 모의고사 때 보다는 점수가 오른 학생들이 있었다. 8회차로 스터디 모임을 마무리 지으면서 6월 12일 토익 시험을 위해 각자 부족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토익 시험을 보러가기로 약속하였고, 추후 있을 결과 공유 시간에 각자 토익 시험 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마쳤다.
06/23	18:00 ~ 19:00	비대면	5/29 또는 6/12 토익 시험 응시 결과 공유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을 가졌다.

○ 활동 소감

▶김*영

한 학기동안 같은 과 동기들끼리 모여 학습법 소모임을 한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는 것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대면 강의가 됨과 동시에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4학년이라서 졸업을 앞두고 동기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동시에 취업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을 때는 다소 부족한 실력으로 토익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소모임이 마무리 된 이 시점에서는 스터디 모임을 하기 전보다는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다. 혼자서 공부를 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지도 모르는 단어장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니 1회독까지 마칠 수 있었고, 점점 더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고 스터디 모임을 하기를 잘했다고 느꼈다.

6월 12일에 본 결과가 내가 원했던 목표 점수에는 미치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한다면 충분히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름 방학 때도 1학기 스터디 모임에서 얻은 토익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김*음

토익 학습법 소모임 마지막으로 토익 시험을 보고 왔다. 나는 시간 착각으로 잘못 접수해서 5월 29일 날 토익을 먼저 보고 왔다. 이번 토익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LC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LC 파트 5에서는 지난 기출문제집을 풀 때 비슷한 난이도였던 것 같았는데, 역시나 비슷하게 LC 1,2 파트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리고 RC부분에서는 RC파트의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았다.

이번 토익 시험을 통해서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봐야할지 알게 되었다. 우선 LC와 RC의 문법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토익 학습법 소모임을 하면서 전체적으

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팀원들과 공유하면서 혼자 공부하려고 했던 것을 팀원들과 같이 공부 하니까 토익 공부를 부지런하게 꾸준히 할 수 있었다. 팀원들과 같이 토익공부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 같이 할 기회가 생긴다면 같이 하고 싶다.

▶이*원

난생 처음으로 토익 시험을 치렀다.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고 나도 미리 미리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놓을 걸 하고 후회도 했다. 토익 시험이 처음인 만큼 긴장도 많이 되었고 문제지에 마킹이나 낙서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당일 날 알아서 조금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다. 모의고사를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LC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들렸던 것 같다. 또 전날 긴장이 되어 잠을 설친 탓에 졸았던 것도 있어서 아쉬운 시험이었다.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분배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비록 성적은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최악이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다음엔 점수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만약 팀원들이 없었으면 단어 암기나 모의고사 풀이를 중도 포기했을 지도 몰랐을 것이라 팀원들이 도움이 많이 되어서 고맷다.

▶정*진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토익 시험과 가까워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비록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팀원들과 매주 단어시험과 모의고사를 보면서 토익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 특히 나에게 있어서 영어는 항상 미루고 싶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는데 단어시험도 직접 출제해보고 매주 접하다보니 이제는 일상이 되어 미루지 않고 매주 해나가는 존재가 되었다. 물론 공부를 하는 것에 비해 딱히 발전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팀원들이 있었기에 함께 서로를 북돋워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결과 시험장에서도 떨지 않고 항상 해왔던 것처럼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시험 날의 컨디션 저조와 낯선 시험장 환경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보던 실력보다 낮게 나와 아쉽지만, 학습법 소모임 활동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것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앞으로 토익을 어떻게 공부해나가야 할지의 방향성이나 나의 취약한 부분을 깨닫게 되어 다음 시험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다. 이 자신감을 토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방학에는 토익 공부에 더 확실히 집중하여 점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2022 학년도 1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III. 전공 튜터링

- 전공 튜터링 완료 명단
- 전공 튜터링 우수팀 활동 사례
 1. 바이오믹스
 2. 톰과학제리

○ 전공 튜터링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바이오믹스 (우수)	안*운	의생명과학과
	강*민	의생명과학과
	김*연	의생명과학과
	차*진	의생명과학과
통과학제리 (우수)	장*희	의생명과학과
	이*교	의생명과학과
	이*민	의생명과학과
	지*윤	의생명과학과
	김*주	의생명과학과
에블준다	김*정	바이오공학과
	강*용	바이오공학과
challenger	최*희	의생명과학과
	이*호	의생명과학과
	조*현	의생명과학과
	한*희	의생명과학과
주말공부	박*연	약학과
	김*미	약학과
	윤*연	약학과
	이*주	약학과
	최*희	약학과
병태공부하고영덕대게먹자	허*현	약학과
	이*연	약학과
	안*영	약학과
	문*인	약학과
	임*정	약학과
	채*은	약학과
재재	장*린	약학과
	김*윤	약학과
	배*현	약학과
스팸	안*석	바이오공학과
	김*윤	의생명과학과
	하*형	식품생명공학과
	김*영	식품생명공학과

팀명	팀원	학과
약병아리	김*솔	약학과
	김*연	약학과
약치완성	이*혜	약학과
	류*우	약학과
	정*경	약학과
제제같이하조	박*현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희	약학과
	서*연	약학과
	장*영	약학과
췌! 우린 공부중	김*서	간호학과
	김*현	간호학과
	김*지	간호학과
의제의신	김*희	약학과
	김*경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연	약학과
	이*민	약학과
멘탈CHA힐링센터	김*민	간호학과
	김*지	간호학과
으악약화학	문*주	약학과
	박*린	약학과
	이*연	약학과
	이*현	약학과

○ 전공 튜터링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바이오믹스

- 학과: 의생명과학과
- 튜터: 안*운
- 튜티: 강*민 김*연 차*진
- 학습과목: 일반생물학
- 학습장소: 북카페
- 학습 기간: 2022.04.29. ~ 2022.05.2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29	19:30 ~ 21:30	북카페	chapter 3에 등장하는 세포의 대한 내용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간단한 기본 물질에 대해 알아보았다. 챕터 3에서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은 탄소로 이루어진 organic compounds라는 것에서 시작하여, 유기화합물의 기본 구성, chemical groups를 이해하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인 carbohydrates, protein, lipid, nucleic acid 등의 구조와 기능, 구성하는 물질, 물질 간의 결합 형성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05/06	19:30 ~ 21:30	북카페	chapter 4는 A Tour of the Cell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보았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CELL을 탐구하기 위한 현미경, TEM, SEM, EM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핵막의 유무와 소기관의 유무의 따른 prokaryote, eukaryote에 대해서 차이와 공통점을 알고, 중점이 되는 eukaryote에 대해서 더 학습해 보았다. Cell을 구성하는 소기관에 nucleus, rough ER, smooth ER, ribosome, Golgi, mitochondria, chloroplast 등을 통해서 cell의 기능에 대해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05/13	19:00 ~ 21:30	북카페	chapter 5-6 The working cell/ How cells harvest chemical energy라는 주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였다. 챕터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에서는 cell내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membrane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해 보았고, 이러한 Cell들이 일을 하기 위해 energy인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cell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enzyme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챕터 6를 통해서는 챕터 5에 나온 ATP생성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이용해 세포호흡을 거치면서 발생한 ATP와 ATP의 사용을 학습해 보았다.
05/20	19:30 ~ 21:30	북카페	chapter 7 Photosynthesis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보았다. 의생명과학과는 식물에 대해서 다룰 학문이 없다. 일반생물학을 통해서 배우는 식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동물들과 같이 식물도 에너지를 생성하고 조금은 다른 cell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다. 식물도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ATP를 생성하기 위한 매커니즘이 존재하고, 몇 가지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동물세포에서 사용되는 매커니즘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다.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사실상, 선·후배 간의 관계로 전공 학습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배우는 것도 배우는 과정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의생명과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발판이 되는 일반 생물학을 학습하면서 생명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학습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모이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교내에서 진행되는 전공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모이게 된 우리는 서로의 학습 방법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지식과 학습을 전달해주는 형식이 아닌 스스로 공부를 통해 정리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시작해 튜티들이 방향을 잡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에 익숙해지고 서로의 대한 생각과 추가적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얻는 것도 생겼고, 스스로 학습하는 대학 수업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22학번들은 현재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복습하는 형태를 가졌고, 21학번인 나도 의생명과학과에서 가장 기초로 두는 일반 생물학을 다시 복습하고 놓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서로 처음 진행하는 방식에 어색한 것도 있었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대학 공부에서는 도움이 되었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팀명 : 통과학제리

- 학과: 의생명과학과
- 튜터: 이*교
- 튜티: 장*희 이*민 지*윤 김*주
- 학습과목: 일반생물학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5.05. ~ 2022.05.26.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5	19:30 ~ 21:50	ZOOM	ADSC가 metabolic homeostasis를 조절하고, mitophagy를 촉진함으로써 노화(aging)을 지연시킨다는 내용의 논문 학습을 진행함. 전공 내용을 끌어와 replicative senescence, mesenchymal stem cell, fibroblast, mitochondria 등에 대해 학습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실험기법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함.
05/12	19:30 ~ 21:50	ZOOM	지난 회차에서 보았던 논문 학습을 이어나감. autophagy marker인 P62의 이해를 위해 autophagy의 과정을 학습했으며, 이외에도 JC-1 staining, immunofluorescence(IF), flow cytometry 등을 공부함.
05/19	19:30 ~ 21:30	ZOOM	human pluripotent stem cell로부터 functional hair cell을 포함하고 있는 inner ear organoid의 generation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을 학습함. hPSC에서 otic placode로 분화하기까지의 전반적인 발생학 관련 공부를 진행함. 이 과정에서 TGF, BMP, FGF, WNT signaling을 조절하는 과정을 함께 이해해봄. 이에 관련된 non-neural ectoderm, cranial neural crest cell 등의 개념을 학습함.
05/26	19:30 ~ 21:50	ZOOM	matrigel의 역할, extracellular matrix의 구조에 대해 학습함. hair cell induction tracking을 위해 사용된 eGFP라는 형광단백질과 이를 발현하는 새로운 cell line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CRISPR-Cas9이라는 실험기법에 대해 알아봄. 추가적으로 vestibular hair cell의 2가지 type의 차이점과 DIC에 대한 전공 관련 학습을 진행함.

○ 활동 소감

▶장*희

이제는 영자 논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논문에서 사용된 실험기법들은 무엇이고 그 목적과 원리는 무엇인지, 각각의 figure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느정도 감을 익히고 숙련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니라 각자 공부한 것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반복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논문 읽기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전공 학습을 병행하면서 예습 및 복습이 가능했고 선배, 후배와 함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지*윤

논문을, 특히 영어로 된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이번 활동을 하면서 처음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거 같다.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모르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단어를 찾아보고 그림과 함께 논문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하니 어느새 하나의 논문을 모두 읽자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내 지식이 늘수록 논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고, 많은 논문을 이해할수록 내가 가지게 되는 지식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

처음치고는 나쁘지 않게 성장한 듯하다. 논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요령은 어느 정도 알겠으나 아직 부분부분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것들이 하나로 이어지지 못 해 완벽한 이해를 하는 정도까진 이르지 않았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논문을 접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영어 공부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어 공부 학습법의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민

혼자서는 절대 읽지 못했을 어려운 영어 논문을 두 편이나 완독했다는 점에서 정말 뿌듯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선배님들이 여러모로 독려해주시면서 이끌어주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단어들이 생기며 자신감이 붙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이후에 배우게 될 여러 과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2022 학년도 1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IV. 리더스 리더스

- 리더스 리더스 완료 명단
- 리더스 리더스 우수팀 활동 사례
 1. 책과맞선
 2. 책먹는차약이

○ 리딩 리더스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책과맞선 (우수)	민*기	약학과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박*	약학과
	이*지	약학과
	한*훈	약학과
책 먹는 차약이 (우수)	류*우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부귀영화	배*현	약학과
	김*윤	약학과
	장*린	약학과
독서의힘	장*영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서*연	약학과
송우리 교양이들2	김*솔	약학과
	문*주	약학과
	박*린	약학과
	원*웅	약학과
	이*연	약학과
다독다독	이*연	약학과
	김*영	약학과
	신*철	약학과
	이*호	약학과
	조*정	약학과
	허*현	약학과
	이*주	약학과
세계사에 빠지다	김*미	약학과
	최*희	약학과
	박*연	약학과
	윤*연	약학과
		약학과

○ 리딩 리더스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책과맞선

- 학과: 약학과
- 팀원: 민*기 권*현 김*경 박* 이*지 한*훈
- 학습내용: 독서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4.30. ~ 2022.06.0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30	10:00 ~ 12:00	ZOOM	나카고시 히로시가 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 순 없을까?' 라는 책을 미리 읽고 줌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각 목차를 보며 주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인상깊었던 점은 무엇인지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를 자기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대입해보았는지를 얘기해보았다.
05/28	10:00 ~ 12:00	ZOOM	로먼 크르즈나릭이 쓴 '인생학교 일' 이라는 책을 미리 읽고 줌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어보았다. 작가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직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는 천직을 찾아 알맞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어보았다.
06/04	10:00 ~ 12:00	ZOOM	김유진이 쓴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라는 책을 미리 읽고 줌 회의를 통해 생각을 공유했다. 일단 이 저자가 TV 프로그램에 나온 영상 클립도 다 함께 보면서 책의 내용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고, 저자의 상황에 놓였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 활동 소감

▶1회차 감상평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 순 없을까?' 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현재 6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왔었다. 성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주로 많이 고민해왔지만, 이 책을 읽고 대화함으로써 과연 나를 위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요즘처럼 비교 대상을 찾기 쉬운 세상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부모님의 성공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며 그릇된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개개인을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되었다. 새로운 길을 향해 눈을 돌릴 용기는 갖고 태어나기 보다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임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많은 생각들을 해보아야 한다. 제목 그대로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해주었고, 다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이 되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함으로 눈치보지말고, 나를 충족시킬 나만의 기준을 세워 행동해보기를 함께 다짐해보았다.

▶2회차 감상평

'인생학교 일' 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로 우리의 진로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좁은 선택지 안에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지 많이 고민해보게 하는 책이었다.

처음보다 이 진로에 많은 선택지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 고민을 하면서도 내내 불안해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들며, 우리는 우리가 해나갈 일, 직업에서 만족을 찾고, 일이 갖는 의미를 알아가며 어떻게 행복과 자유를 느낄 것인지 직접 부딪혀 보며 알아가하기로 얘기해보았다. 원동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니 우리만의 원동력을 찾아 천직을 잘 키워나가기로 했다.

▶3회차 감상평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마음에 조금은 휴식을 주는 느낌이었는데, 나 자신에게 몰입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그간 얼마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썼는지, 다른 이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했던 일들은 무엇인지 대화하며 생각해보았고, 지나간 행동들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평가, 잣대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결국 그것이나의 삶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다 함께 고민하며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니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나 자신을 바라볼지,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공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를 위한 시간을 우리는 어떤 방식

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보았다. 이 책은 코로나19를 겪으며 했던 우리의 많은 고민들에 꽤나 관련이 깊었고, 흔히들 코로나블루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어려움들에 어떻게 더 나은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다 함께 얘기해보았다.

▶**종합 의견**

사회에 나가기 전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마냥 힘들어했던 우리에게 참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먼저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지만 우리는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만의 기준을 각자 새우게 되었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을 기반을 세워보았다.

또 직장에 가 일을 하며 하루하루 보낼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찾을 것인지, 보람을 어디서 느끼고 과연 만족할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해봄으로써 조금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하고 약간은 더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가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용돌이처럼 많은 정보가 몰아치고 있지만,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몰입하여 나의 시간을 확보, 잘 사용한다면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반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어른으로 성장 해야 할 지 우리의 손에 달렸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팀명 : 책먹는차약이

- 학과: 약학과
- 팀원: 류*우 이*혜 정*경
- 학습내용: 독서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4.18. ~ 2022.06.2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4	21:00 ~ 23:00	ZOOM	'달려구트의 꿈 백화점'을 읽고 꿈의 세계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줌에서 만나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과 내가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자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다.
05/25	21:00 ~ 23:00	ZOOM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읽고 인생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다. 자신의 삶에서 다른 선택을 하면 어땠을지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또 만약 그랬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보았다.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여러 인생 중 어떤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과 비슷한지 자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06/15	21:00 ~ 23:00	ZOOM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고 이어령 작가가 말하는 은유와 비유 섞인 표현에 대해 자신 나름대로의 해석과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 해보았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다양한 주제와 표현 중에서 자신이 얘기해보고 싶거나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따로 표시해 두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 소감

▶1회차 감상평

잠이 든 시간동안 꾸는 꿈에 대한 재미있는 상상과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각자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책이 재미있는 상상으로 가득차 있다보니 우리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2회차 감상평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중요했던 순간들이 언제인지 곱씹어 보았다. 그렇게 각자의 얘기를 풀어 놓다보니 다른 시간과 다른 경험을 거쳐 결국 이 학교에 와 만나게 된 것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긍정적 메시지 덕분에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한 후 또 앞으로의 삶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며 대화할 수 있어서 좋은 에너지가 오고갔던 시간이었다.

▶3회차 감상평

꽤나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던 회차인 것 같다.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삶과 죽음이다보니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특히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은 맞지만 또 그만큼 각자가 다른 태도로 죽음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회차라서 제일 심도깊은 대화를 했던 것 같다.

▶종합 의견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책 읽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었다. 시대가 흐르며 각종 콘텐츠의 형태가 동영상으로 옮겨가는 추세라 글의 시대를 지나 영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은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원들이 다같이 책을 읽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조원도 있었고 책을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는 조원도 있었다. 책을 많이 읽었던 조원은 평소에는 혼자 책을 읽는 게 전부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책 내용과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같은 것을 읽어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별로 책을 읽지 않던 조원은 이번 기회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 책을 읽고 대화하는 재미를 통해 다른 책들도 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소모임 활동을 위해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하니 몇 개월 동안 3권을 완독했다는 게 신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이렇게 리딩리더스 소모임을 신청해서 활동을 한 덕분에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2022 학년도 1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V. 영어 클럽

- 영어 클럽 완료 명단
- 영어 클럽 우수팀 활동 사례
 1. 달려라 영어리쉬
 2. 고고고무비무비

○ 영글 클럽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달려라 영어리쉬 (우수)	김*우	약학과
	이*영	약학과
	임*정	약학과
	정*지	약학과
	이*연	약학과
	채*은	약학과
고고고무비무비 (우수)	최*희	약학과
	김*미	약학과
	박*연	약학과
	윤*연	약학과
도원결의	이*주	약학과
	신*철	약학과
	김*영	약학과
	조*정	약학과
부귀영화	김*솔	약학과
	김*윤	약학과
	배*현	약학과
무비 투나잇	장*린	약학과
	박*희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서*연	약학과
무지개를 올라탄 차약이	장*영	약학과
	박*	약학과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민*기	약학과
	이*지	약학과
마홀	한*훈	약학과
	홍*식	데이터경영학과
MC with CHA	김*태	데이터경영학과
	박*민	의생명과학과
	김*길	의생명과학과
	정*민	의생명과학과
	김*주	의생명과학과

○ **영글 클럽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달려라 영글리쉬

- 학부: 약학과
- 팀원: 김*우 이*영 임*정 정*지 이*연 채*은
- 학습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5.05. ~ 2022.05.3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5	20:00 ~ 22:00	ZOOM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선정한 영화인 리틀 포레스트를 함께 시청하였다. 모두 수험생활을 오래 거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떨어지게 되고, 본인의 고향시골로 돌아와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며 우리 또한 생각해볼 거리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되었다. 당시 피트 준비를 진행하던 시절에 이 영화가 개봉하였는데, 잔잔한 내용으로 힐링되는 기분을 안겨준다는 말에 보러가고 싶었다는 말을 모두가 하였다. 하지만 다들 바쁜 와중에 영화를 보지 못했고, 이제야 리틀 포레스트를 함께 시청하게 되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여유롭게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해 영화를 시청하며 그 편안함을 만끽하였다. 영화를 시청한 후,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상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05/15	20:00 ~ 22:00	ZOOM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슬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주제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시청하였다. 아이 캔 스피크라는 영화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로, 옥분이라는 성함을 지닌 할머니가 구청 직원에게 영어를 배우고 미국에서 일본

			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 채택을 위해 연설하러 떠난 이야기이다. 위안부의 가슴아픈 진실과 역사가 담겨있지만, 그 줄거리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낸 영화였다. 각자의 바쁜 삶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데, 망각했던 역사의 사실들을 새삼 떠올릴 수 있는 영화였다. 영화를 시청한 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할지 대화를 나누며 삶의 방향을 설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05/30	20:00 ~ 22:00	ZOOM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를 시청하였다. 이 영화를 시청하기 전에 단순히 감동 로맨스 영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시청 후 모두들 단순 로맨스가 아닌 가족애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였다. 타임 슬립이라는 다소 판타지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연인간의 로맨스 뿐 아니라 가족과의 일상의 소중함 또한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였다. 영화를 보며 우리 일상에는 어떠한 소중함이 있을지 생각해보기로 미리 얘기를 나눈 후, 영화를 시청한 후에는 이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가져보도록 하였다.

○ 활동 소감

▶1회차 감상평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현실을 도피하듯이 떠나온 고향에서 느끼는 평화로움과 편안함에서, 과연 본인만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미리 얘기를 나누었다. 영화를 다 시청한 뒤, 영화의 줄거리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여주인공의 눈길을 끌었던 행동들, 그리고 본인이 꿈꾸는 행복과 미래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까지 수험생활과 학교생활을 이어오느라 고생해 온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2회차 감상평

유쾌하고 즐겁게 풀어낸 영화지만, 그 속에 담긴 가슴 아픈 역사의 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뉴스에 위안부 얘기가 나오거나, 독립 열사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흐린 눈을 하고 지나치기 일쑤였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할지, 육분할머니처럼 '나는 말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당당히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다짐을 되새길 수 있는 영화였다.

▶3회차 감상평

우리는 가족들과 언제 이별할지,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

른다. 그런데도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속에서는 이별이 언제 올지 미리 알면서도, 서로 순간순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온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과의 애뜻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각자 일상에서 어떠한 순간들이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얘기를 나누며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합 의견**

우리는 평소 학교생활을 지내면서 또는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밖에 안하고 살아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까지 느껴진다.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오지 못하고 항상 전전긍긍 바쁘게 할 일을 쫓으면서 살아온 것 같다. 그런 바쁜 생활에서 이번 영화 글쓰기 클럽 활동을 통해 영화로 문화생활하면서 바쁜 일상의 긴장을 한 층 내려놓을 수 있었다.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동기들과 영화를 같이 보면서 비록 좁이지만 함께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학습법 소모임의 활동보고서를 쓰면서도 다시금 영화마다의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냥 단순히 영화를 보고 “재밌다,” “재미없다.”의 단순한 평이 아니라 영화 하나하나의 장면을 생각해내고 각자의 다른 감상평을 들어보면서 나랑은 전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구나 하면서 사람마다의 개인적인 생각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보면서 바쁜 일상속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싶다.

팀명 : 고고고무비무비

- 학과: 약학과
- 팀원: 최*희 김*미 박*연 윤*연 이*주
- 학습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4.18. ~ 2022.06.2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16	20:00 ~ 22:00	ZOOM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각자 느낀 점과 감상을 나누었다.
06/21	20:00 ~ 22:00	ZOOM	영화 '웰컴투 동막골'을 보고 각자 느낀 점과 감상을 나누었다.
06/23	20:00 ~ 22:00	ZOOM	영화 '패왕별희'를 보고 각자 느낀 점과 감상을 나누었다.

○ 활동 소감

▶1회차 감상평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으로 영화를 본 후 팀원들과 역사 속에서 빚어진 가슴 아픈 갈등과 그로 인한 보통의 사람들이 입는 피해와 희생에 대해 이야기 했다. 특히 얼마 전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지어 전쟁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절대 다수는 피해를 넘어 고통만 받는 구조이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 입을 모았다.

▶2회차 감상평

영화 '웰컴투 동막골'은 1950년 6·25 전쟁을 배경으로 반전과 더불어 이념의 차이 이전에 인간의 순수하고 따뜻한 인정미, 휴머니즘을 깨닫게 되는 영화이다. 세 편의 영화 중 가장 코미디 장르스러웠기 때문에 다들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고, 결말 부분에 대해선 팀원들마다 생각이 갈렸는데 누군가는 전부 죽었기 때문에 새드엔딩이라고 평했고 누군가는 결국 순수의 결정체인 동막골은 지켜졌기에 해피엔딩이라고 말했다.

▶3회차 감상평

영화 '패왕별희'는 청일전쟁, 그리고 문화혁명이라는 배경 속에서 세 사람의 갈등과 비극적 운명을 그린 작품으로 팀원들마다 감정을 이입하여 본 관계성이 다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영화를 볼 때는 오히려 관심 없이 보았던 관계성이 이야기를 나누며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인물에 대해서도 나름의 반론의 여지와 이해받을 구석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종합 의견**

역시 같은 영화를 보아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와 감상 포인트가 다 달라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감상문을 읽을 때에도 각 팀원들의 개성이 묻어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영화를 단순히 한 번 감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생각과 고민이 이어지다 보니 영화에 대한 감상의 폭이 그저 한 번 볼 때보다 더 깊고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의 영화에 대해 감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상문을 쓰며 두 번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상도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 선정한 세 편의 영화가 모두 전쟁이나 문화 대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각기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을 다룬 영화였기에 하나의 주제 아래 흐름성 있게 감상할 수 있었다. 휘몰아치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인간은 한낱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의지, 예술에 대한 강한 집념 등 본인의 의지로 이에 맞서는 인물들을 보며 강인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결국 운명에 맞서는 것은 개개인의 의지이며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나 역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곳곳이 버티고 맞서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학기 중에 다들 실습으로 바빠 얼굴을 보기는커녕 영화를 챙겨볼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영글클럽 소모임이 있어 정해진 기일까지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며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 처음 보는 영화도 있었고 이전에 봤던 영화도 있었지만 모두 좋은 영화들이어서 보고 난 다음에도 생각할 거리와 남는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오래 회자되는 훌륭한 영화들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 함께 좋은 영화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2022 학년도 1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VI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1. 화학 그것이 알고 싶다
 2. 다다
 3. 약치치치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화학, 그것이 알고 싶다	이*민	의생명과학과
	김*연	의생명과학과
다다	손*교	미술치료학과
	이*혁	미술치료학과
약치치치	김*정	약학과
	문*주	약학과
	조*정	약학과
	김*솔	약학과
	이*슬	약학과
	이*원	약학과
	이*지	약학과
	김*영	약학과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팀명 : 화학 그것이 알고 싶다

- 학과: 의생명과학과
- 지도교수: 박*홍
- 팀원: 이*민 김*연
- 학습과목: 이상심리학
- 학습장소: 교수님 연구실(과학관), CBC
- 학습 기간: 2022.05.21. ~ 2022.06.0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21	14:30 ~ 16:30	교수님 연구실 (과학관)	오리엔테이션 및 아이스 브레이킹, 교수님과의 진로 상담과 조언 시간
05/28	12:00 ~ 16:00	차바이오 컴플렉스 (CBC)	차 바이오 컴플렉스 견학
05/31	15:00 ~ 18:30	교수님 연구실 (과학관)	기말고사 준비를 위한 공부
06/7	13:30 ~ 16:00	교수님 연구실 (과학관)	기말고사 준비를 위한 공부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교수님과 함께 하는 활동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기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즐겁게 마칠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 교수님을 보았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이야기기도 하지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조언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이후로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교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즐거웠다. 특히 차 바이오 컴플렉스에 견학을 갔던 것이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인턴이나 대학원생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방문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큰 규모의 연구소도 견학 해보고, 다양한 실험 기기의 자세한 구조와 기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책으로만 보던 실험 기기들과 실험 도구들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던 견학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모르는 점을 알아갔던 부분 역시 즐거웠다. 교수님을 뵙기 전에 학생들끼리 먼저 모여 함께 공부하고 서로 모르는 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을 위해 각자가 먼저 공부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며 내 것으로 만든 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고르고 골라 정리했다. 그 이후에 학생들끼리 만나 서로가 모르는 부분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서로에게 자신이 이해한 바를 설명해주며 해소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둘 다 이해가 가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교수님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소모임을 운영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기 전에 스스로, 혹은 친구와 함께 조사하고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교수님을 통해 모르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즐겁고 유익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화학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학습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친구와 교수님과의 교류로 인해 더욱 의미있는 대학 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 친구와 같이 공부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재밌게 했다. 나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팀명 : 다다

- 학과: 미술치료학과
- 지도교수: 박*미
- 팀원: 손*교, 이*혁
- 학습주제: 미술치료 실습
- 학습장소: 미술치료학과 실습실
- 학습 기간: 2022.04.29. ~ 2022.06.0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29	18:00 ~ 20:00	미술치료 학과 실습실	미술치료 실습 시연 및 미술치료 실습 일지 작성, 진행한 사전 설문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미술치료 실습 구성 및 수퍼비전 과정을 통해 실습의 안전성을 구축하고, 이후 이어질 연구진행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짐.
05/12	18:00 ~ 20:00	미술치료 학과 실습실	미술치료 실습과 관련하여 회기 목표 및 진행 상황과 관련된 학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실치료 이론 중 WDEP 기법을 중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탐색하는 시기이므로 내담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회기를 구성함.
05/18	18:00 ~ 20:00	미술치료 학과 실습실	실습의 목표인 내담자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어떤 개입이 효과적일지, 현재 사용 중인 WDEP기법이 어떤 부분에 나타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후에 진행될 회기에서 어떻게 내담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지를 메인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
06/01	18:00 ~ 20:00	미술치료 학과 실습실	현재 진행하는 미술치료 사례를 연구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눴을 뿐만 아니라 실습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치료사가 가져야할 태도와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짐.

○ 활동 소감

▶손*교

교수-학습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이전 비대면 실습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실습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주, 보조 치료사 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등과 함께 미술치료 임상 실습에서 가장 기초가 되지만, 가장 잘하지 못하였던 일지 작성 및 구조화 측면에서 선배님과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턴 미술치료사로서 실습을 나가기 전부터 내담자의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론을 중심으로 치료 목표를 구성하고 이와 잘 어울리는 이론을 통해 잘 구조화된 치료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지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었으며, 각 회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문어체와 구어체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치료사의 주관의 개입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알기 어려웠고 모르고 넘어갔을 때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아있는 정보를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언과 고민을 통해 내담자가 치료사를 얼마나 믿어주는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경험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문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도 수립해보며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와 같은 기회가 온다면 더 적극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혁

이번 교수-학생 소모임을 통해 미술치료 실습과 일지 작성 및 논문 작성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보 미술치료사로서 실습을 진행할 때 유의점과 실제 실습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교수님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고, 전략적인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함께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치료사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대처방법과 사전에 계획할 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조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실제 논문을 작성하기 전 연구계획서를 구상하였고, 연구방법론에 대한 접근과 피드백 통해 구체적인 논문 작성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팀명 : 약치치치

- 학과: 약학과
- 지도교수: 최*윤
- 팀원: 김*정 문*주 조*정 김*솔 이*슬 이*원 이*지 김*영
- 학습주제: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4.23. ~ 2022.06.0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23	10:00 ~ 11:30	ZOOM	급성신손상/만성콩팥병/신장이식에 대해 단원별로 짧게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집 풀이 시 의문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표를 만들어 먼저 외운 후 세부 약물들은 수업 PPT를 보면서 살을 붙였다. 주로 약물의 용법이나 용량, 부작용과 복약지도 해야 하는 특징에 대해 암기하였다. 암기 후에는 퀴즈를 통해서 외운 내용을 확인해보았다.
05/03	22:00 ~ 23:30	ZOOM	GERD/ IBS에 대해 스터디원과 함께 요약, 암기하고 문제 푸는 스터디를 진행했다. 이 단원에서는 지사제와 하제, IBS-C와 IBS-D, 마지막으로 GERD에 대해 공부했다. 증상 등에 대해서는 가볍게 서로 설명해보면서 넘어갔고 각 질병에 쓰일 수 있는 약물요법에 대해 표로 정리한 후 암기하였다. 이후 세부 약물은 문제를 풀면서 외웠고, 특히 약물부작용이나 용법, 특별히 복약지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외웠다.
05/10	22:00 ~ 23:30	ZOOM	상기도감염과 하기도감염 2단원을 공부하고 정리하였다. 강의가 끝난 뒤 조원들 각자 상기도감염, 하기도감염에 해당하는 case 문제 및 이론문제를 풀어본 뒤 화요일에 모여서 각자의 답안을 비교하고 토의하였다. 그리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시간을 재고 암기한 뒤 대화하며 구두 퀴즈를 진행했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7	22:00 ~ 23:30	ZOOM	결핵/ 감염치료원칙에 대해 스터디원과 함께 공부했다. 또한, 외운 균의 특징을 기반으로 균의 특징을 기반으로 각 균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지도 정리했다. 이후 항생제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정리하여 어떤 감염병에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전체를 스터디원들과 함께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이를 표 하나로 정리했다.
05/24	22:00 ~ 23:30	ZOOM	위장관감염/요로감염 수업을 들은 후 외국 문제집 기준으로 해당 파트의 문제들을 선별 후 배분하여 수업 PPT 기준으로 해설을 만들어 붙이고 공유하였다. 이후 약속된 스터디 시간 전까지 위장관감염/요로감염 파트의 문제들을 각자 풀고 만들어진 해설본을 기준으로 공부 후 의문점이 있는 것들을 스터디 시간에 함께 토론하고 결론 내렸다.
05/31	22:00 ~ 23:30	ZOOM	진균감염에 대한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앞선 수업에서는 세균 위주로 수업을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진균에 대해 배워서 균의 이름과 약의 종류를 외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수업이 끝난 후에 각자 진균감염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오고 모여서 답을 비교하고 서로 토론하였다. 그 다음으로 약의 이름과 대표적인 부작용, 질병에 따른 약물 사용 전략을 암기하고, 수업 ppt에 교수님이 수업해 주신 Case study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06/07	22:00 ~ 23:30	ZOOM	바이러스감염/중추신경계감염에 대해 스터디원과 함께 공부했다. AIDS 치료를 위한 약물과 약물의 조합을 정리하고 암기하였으며, 이후 부작용, 사용하지 말아야 할 조합에 대해 덧붙여 암기하며, 각 항생제별 부작용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외에도 사전예방, 사후예방, 산모/태아 간 감염을 예방하는 요법에 대해 학습했다. 중추신경계 감염의 경우 나이, 상황에 따라 감염 의심 균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학습한 후 각자 나이 및 상황별 항생제 조합에 대한 표를 그려서 빈칸 퀴즈를 진행하였다.

○ 활동 소감

▶김*정

다 함께 공부하니깐 힘들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배우는 과목이기도 하고 배우는 양도 방대해서 암기한 것들을 좀 더 반복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음 학기에도 동일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다면 암기한 것들을 좀 더 누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스터디 계획을 짰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슬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해설을 덧붙여 공부하니깐 혼자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 함께 약속한 기한까지 문제 풀이를 해오기로 약속한 것이다 보니 진도가 밀리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영

수업 후 다 같이 암기하고 문제를 푸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정리가 잘 되었고 잘 암기되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니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을 교수님께 질문하여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주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함께 토의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고, 특히 혼자서는 암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양한 암기법을 만들어 진행하였기 때문에 더 쉽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

처음에는 스터디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같이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니 혼자 공부할 때보다 이해가 잘 되었고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서 해결해나가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슬

스터디를 같이 하니깐 혼자서 배운 내용을 암기하려면 좀 느슨하게 공부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다 같이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암기법을 만들고 외웠는지 바로바로 확인하니깐 좀 더 긴장하면서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암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지

처음 수업을 들을 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혼자서는 암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재미있는 암기법을 만들면서 진행하여서 더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스터디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에 혼자 공부할 때에는 수업을 들은 후에 별도로 암기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시험 기간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스터디를 하면서 다 같이 암기하고, 모르는 부분을 함께 토론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2 학년도 1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VII.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완료 명단
-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활동 사례
 1. Stella&Sally
 2. 갓생살기
 3. 미어캣들

○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Stella and Sally (우수)	김*성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갓생살기 (우수)	김*정	간호학과
	이*경	간호학과
	이*진	간호학과
	이*은	간호학과
	박*진	간호학과
	차*음	간호학과
(기웃기웃)미어캣들 (우수)	박*연	바이오공학과
	경*혜	바이오공학과
	김*중	바이오공학과
	심*미	바이오공학과
	인*은	바이오공학과
	최*영	바이오공학과
	장*휘	스포츠의학과
CHA이나는 약사	정*희	약학과
	정*경	약학과
	이*원	약학과
	이*지	약학과
	이*혜	약학과
	류*우	약학과
Healthier	장*린	약학과
	김*민	약학과
	김*윤	약학과
강약약 중간약약	최*희	약학과
	김*미	약학과
	박*연	약학과
	윤*연	약학과
	이*주	약학과
입체적 스터디	김*인	약학과
	최*현	약학과
	최*혁	약학과
	박*욱	약학과
	이*연	약학과
	김*석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주식왕 김차차	김*경	약학과
	권*현	약학과
	민*기	약학과
	박*	약학과
	이*지	약학과
	한*훈	약학과
차근차근	이*연	약학과
	김*우	약학과
	이*영	약학과
	임*정	약학과
	정*지	약학과
	채*은	약학과
책 읽는 베프이	서*연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장*영	약학과
990Mhz	반*은	간호학과
	김*늘	간호학과
	정*민	간호학과
Global pharmacist	이*상	약학과
	목*승	약학과
	유*훈	약학과
	김*인	약학과
L(language)-Sword	서*혁	상담심리학과
	소*진	상담심리학과
뜨거운 감자	신*리	시보건의료학부
	김*지	식품생명공학과
	김*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스키틀즈(skittles)	안*운	의생명과학과
	박*정	의생명과학과
	이*은	의생명과학과
	홍*서	의생명과학과
슬기로운 방학생할	서*원	의생명과학과
	전*연	의생명과학과
	홍*진	의생명과학과
오픽부시는차약이	김*희	약학과
	김*경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김*희	약학과
	김*연	약학과
	이*민	약학과
토토토티	김*민	약학과
	김*윤	약학과
	장*린	약학과
만파식적	유*령	약학과
	김*인	약학과
	최*원	약학과
	지*경	약학과
	강*지	약학과
	박*원	약학과
와자자자작	배*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이*지	약학과
	이*원	약학과
	이*슬	약학과
	장*영	약학과
자격증 따게 해 '조'	소*진	상담심리학과
	서*혁	상담심리학과
지갑상담사	임*민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이*혜	상담심리학과
	이*현	상담심리학과
취보성공고	민*기	약학과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박*	약학과
	이*지	약학과
	한*훈	약학과
한국사부서	정*지	약학과
	임*정	약학과
	이*연	약학과
	이*영	약학과
	김*우	약학과
	채*은	약학과
합격의 공식	신*경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렬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팀명	팀원	학과
도원결의	김*연	의생명과학과
	조*현	의생명과학과
	조*진	의생명과학과
모성랜드	김*민	간호학과
	김*지	간호학과
	김*현	간호학과
방학엔 전공 공부	채*은	약학과
	김*안	약학과
성인군자가 될 성인간호	김*현	간호학과
	김*민	간호학과
	김*서	간호학과
실습 파헤치기	윤*연	약학과
	박*연	약학과
	최*희	약학과
	이*주	약학과
	김*미	약학과
약물왕	김*본	약학과
	김*정	약학과
	정*희	약학과
	정*지	약학과
	김*정	약학과
	유*리	약학과
약치취	김*윤	약학과
	김*민	약학과
	장*린	약학과
일석이조	김*솔	약학과
	강*지	약학과
	유*린	약학과
	이*현	약학과
	이*영	약학과
	한*리	약학과
조제술사	이*혜	약학과
	류*우	약학과
	정*경	약학과
	이*원	약학과
	이*지	약학과
	정*희	약학과
흥미로운 발생학	장*중	의생명과학과
	한*희	의생명과학과

○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Stella&Sally

- 학부: 상담심리학과
- 팀원: 김*성 박*원
- 학습주제: 학술대회 준비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7.18. ~ 2022.07.2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8	21:40 ~ 24:56	ZOOM	연구 내용 정리 (구조방정식 모형 완성도 높이기, 최종 모형 점검, 선행연구를 통한 교차 검증 및 확인)
07/21	20:50 ~ 25:40	ZOOM	포스터 정리 (포스터 샘플 연구, 들어갈 내용 정리 및 내용 배치)
07/27	20:50 ~ 26:07	ZOOM	학회 발표 준비 (피드백 바탕으로 한 포스터 최종 수정, 업체 선정, 발표 예상 질문 정리)

○ 활동 소감

▶박*원

지원했던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막막해 소모임을 신청한 후에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기로 했습니다. 연구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스터를 만들어가고, 출력까지 완료하여 무사히 발표까지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소모임을 통해 회의 시간을 잡지 않았다면, 자칫 조금 일정이 미뤄져 미국 출국 전까지 완성을 못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모임을 신청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소모임이 그 전 과정을 도와준 것 같아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소모임을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

학회를 지원한 후 8월 초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고자 했을 때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습법 소모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부터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기본 3시간 이상의 학회 발표 준비 회의 내용을 어느 것 하나 누락하는 일 없이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 팀은 해외 학회 발표 준비가 처음이었지만, 우왕좌왕 해매는 일 없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단기간에 우수한 성과를 내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또한 강행군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미루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학습법 소모임을 신청해두었으니 해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함께 해주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이 졸업을 예정하고 있어 졸업 전 마지막 하계방학 소모임이었는데, 최대한 이 모임을 활용하고 좋은 성과를 내어 부듯합니다.

팀명 :갯생살기

- 학부: 간호학과
- 팀원: 김*정 이*경 이*진 이*은 박*진 차*음
- 학습주제: 토익
- 학습장소: Google Meet
- 학습 기간: 2022.07.21. ~ 2022.08.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21	20:31 ~ 22:33	Google Meet	학습계획 공유 및 토익 문제풀이
07/29	20:30 ~ 22:42	Google Meet	데일리 LC, RC 문제풀이 및 오답풀이, 수준별 토익 학습
08/03	20:08 ~ 22:09	Google Meet	수준별 토익 문제풀이 및 어려웠던 내용 공유하여 오답풀이
08/12	20:33 ~ 22:35	Google Meet	모의토익 문제풀이 및 부족한 내용 스스로 파악하여 보충

○ 활동 소감

▶**김*정**

이번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동기들과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함께 학습할 수 있어서 토익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먼저 중장기적인 매일 학습을 방학 기간에 서도 유지하였다. 영어 공부는 꾸준함이 중요한데 실력이 느는 게 즉각 즉각 눈에 보이지 않아 공부할 때마다 의지를 잃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단어공부와 토익 공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소감은 토익 성적의 향상이다. 이전에 봤던 모의 토익 성적은 600점대를 오갔었고 이번 기회에 큰 진전을 얻을 수 없더라도 700점 이상을 목표로 잡았고 8월 21일에 토익 시험을 보기로 하였다. 아쉽게도 소모임 기간 이후라 보고서에 내용을 담을 수 없었지만, 토익 시험 문제집을 이용해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한 모의 토익에서 8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물론 모의 토익의 문제 난이도에 따라 아직은 700점대에 가까이 머물러 있으나 단어와 문제 풀이를 하며 어휘에 약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을 꾸준히 보완한다면 더 높은 점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동기들과의 소통이다. 방학 기간동안 서로 먼 지역에 있는 동기들과 학습법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공부법이나 학습지를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해나간다는 느낌을 받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었다. 짧았던 소모임이 아쉽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토익이 아닌 다른 학습 스터디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경

토익시험 대비를 위해 각자 물리적으로는 먼, 다른 공간이지만 비대면으로 만나서 시간을 공유하였다. 토익점수 향상을 위한 공부지만 각자의 방식이 있었고 서로 이 방법들에 대해 공유하며 도움을 주기도, 얻기도 하였다. 예를들면 나는 RC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였다. 또한 어휘가 어려워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른 동기들에게 질문했을 때 차의과학대학교 취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어휘 인강을 듣는다고 소개해주어 기존 단어장을 보는 것에 더하여 어휘 강의에서 정리해준 단어들 20강 중 매일 2강씩 2번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같이 학습을 하며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공부 의지를 돋우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는 의지가 약한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고, 집중이 안 될 땐 동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학습법 소모임에서 정한 날 외에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 가능한 동기들끼리 모여 학습을 지속하였다. 더불어 공부를 하며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독방에 공유하여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영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 해설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영어 공부 시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보며 오답을 작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소모임에 참석하며 21일에 있을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진

토익을 보기 위해 사용한 교재는 해커스 토익 스타트 LC/RC, 토익기출 공식종합서 LC/RC 이고 추가적으로 해커스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학습을 진행했다. 진행 도중 알고 있는 문법을 문장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Grammar Zone 기본편을 활용하여 문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을 하면서 어휘가 빈약함을 느꼈고, 이는 영어 독해에 지장을 주었다. 따라서 LC대본이나 RC지문에서 몰랐던 단어를 정리하여 여러 일 수에 거쳐 반복적으로 보며 습득하려 하였다.

이번 모의 토익을 보면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평소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풀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겼고, 거의 2달 동안의 학습 결과이기에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합쳐져 문제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따라서 다시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로 틀린 경우도 종종 보였다.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짐을 풀면서 느꼈지만 PART7의 현저히 낮은 정답률을 보고 앞으로 긴 글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은

매주 줌 링크를 개설하는 담당 친구를 정하여 스터디를 진행했다. 줌 링크를 개설하는 주간에는 더 책임감을 갖고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었다. 스터디 시간이 오후 8:00~ 로 정해져 있어서 방학 동안에도 꾸준히 공부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단체 카톡방에 오늘의 part5 문제를 보내주어 함께 풀어보고 정답을 투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에도 단어 암기, 모의토익을 함께 진행하면서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스터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스터디그룹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번 방학동안 이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듯했다.

평소에 영어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기간 동안 영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영어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이번 방학 동안 남들이 인정하는 높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방학동안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는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방학 때는 더 높은 목표로 성과를 이루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스터디 그룹을 진행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박*진

토익 소모임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혼자 하면 게을러질 수 있던 공부도 조원들끼리 서로 지켜보고 응원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첫 모의 토익을 보면서 나의 수준을 알아보았을 때 어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 하루에 약 80개의 단어를 꾸준히 암기, 복습 하였다. RC보다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된 LC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 강의로 기초를 다지고 기출문제를 풀며 쉼도잉, 오답노트를 통하여 공부하였다. 8월 21일 정규 토익시험 이전 마지막 모의 토익은 LC 355점, RC 280점으로 마무리했다. 모의 토익을 보며 LC는 파트 2가 가장 어려웠다고 느꼈다. 문제들이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앞의 의문사를 못 들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미국 외의 익숙하지 않은 영국, 호주 발음도 문제 푸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다. RC에서는 시간 분배가 가장 어려웠다.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파트 7의 문제들을 많이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어휘도 많이 외웠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문제를 풀 때 적용이 안 되거나 모르는 어휘도 많이 보였다. 꾸준히 암기해서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문제들을 많이 줄이도록 해야겠다.

이번 방학은 LC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LC 점수는 많이 올랐지만, RC는 거의 그대로인 점수를 보고 다음 토익 공부할 때는 LC는 기본으로 잡고 RC를 집중적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토익 소모임을 통하여 나에게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 지켜보고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초반에는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 나였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의지를 얻어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도 소모임이 열린다면 꼭 참여할 것이다.

▶차*음

이번 여름방학에 토익 공부를 위해 조에 참여하였다 각자 사는 곳과 사는 패턴이 달라서 화면을 통해서 만났지만, 같이 한 시간에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에 공부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방학 동안 부족했던 문법과 어휘를 챙기기 위해서 'ETS 토익 단기공략 750+'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약했던 부분인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무서웠지만, 하면 할수록 고등학교 당시에 공부했던 것이 새록새록 기억나 더욱 탄력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다. 하루에 LC 1과와 RC 1과를 풀려고 노력했으며,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LC나 RC 한 부분만 공부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 어렵고 문제를 많이 틀린 날에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시행하는 소모임에 소속되어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토익 모의고사를 본 결과 각 200문제를 모두 보는 실제 시험과는 달랐지만, 50문제씩 풀이하였습니다. RC는 50개 중에서 14개가 틀렸고, LC는 50개 중에서 10개가 틀려서 토익 점수 환산기에 계산을 한 결과 최소 705점 최대 755점이라는 점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목표 점수였던 점수를 넘겨서 아주 기뻐고, 지금까지 소모임을 하면서 실행한 토익공부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 뿌듯하였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일에 실전에서 토익시험을 치루는데, 연습하였던 것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팀명 : 미어캣들

- 학부: 바이오공학과, 스포츠의학과
- 팀원: 박*연 경*혜 김*중 심*미 인*은 최*영 장*휘
- 학습주제: 컴퓨터활용능력 1급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7.28. ~ 2022.08.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28	11:33 ~ 14:50	ZOOM	컴퓨터 일반(운영체제 사용, 컴퓨터 시스템 설정 변경, 컴퓨터 시스템 관리, 인터넷 자료 활용, 컴퓨터 시스템 보호)
08/12	11:36 ~ 15:00	ZOOM	스프레드시트 일반(스프레드시트 개요, 데이터 입력 및 편집, 수식 활용,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출력, 차트의 생성 및 수정, 매크로 및 프로그래밍)
08/18	14:00 ~ 16:06	ZOOM	데이터베이스 일반(데이터베이스 개요, 테이블 작성, 쿼리 작성, 폼 작성, 보고서 작성,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우리 소모임팀은 분량을 정해두고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학습하고 정해진 날짜에 ZOOM에서 만나 동시에 기출문제를 풀고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는 활동을 주로 진행했다. 공부할 때 같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공부했기 때문에 진도를 확인하기 효율적이었고 기출 문제를 함께 풀었던 활동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소모임 활동은 방학 동안 풀어지지 않고 하고 싶었던 자격증 공부를 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학기 중에는 시간을 내서 다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학동안 친구들과 목표를 정해두고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학습 의욕이 높아졌다. 우리는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는데, 이번 하계방학 소모임 활동 기간 동안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 1급 공부를 함께하고 서로의 준비 정도에 맞춰 1급 필기 자격증을 각자 취득하고 다음 소모임 활동에서 실기 1급 공부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하계 소모임 활동을 통해 비대면 활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또한 서로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겼다. 마지막 활동일에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던 활동이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자는 다짐을 했다.

2022 학년도 1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VIII. 하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하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하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1. 디마짱
 2. BIPS

○ 하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디마짱	오*혜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영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박*선	의료홍보미디어학과
BIPS	박*연	바이오공학과
	박*희	바이오공학과
	홍*라	바이오공학과
	김*	바이오공학과
	조*지	바이오공학과

○ 하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팀명 : 디마짱

- 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지도교수: 김*환
- 팀원: 이*영, 박*선, 오*혜
- 학습주제: 제휴마케팅과 애드센스에 대하여
- 학습장소: ZOOM, 교외
- 학습 기간: 2022.07.27. ~ 2022.08.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27	21:00 ~ 22:30	ZOOM	제휴마케팅과 애드센스에 대하여 1. 나만의 블로그 방향 정하기 2. 내 블로그 수익 올리는 방법 3.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
08/03	20:30 ~ 23:30	ZOOM	수익형 블로그에 대해 1. 수익형 블로그 글쓰는 법 2. 다음(daum) 상위노출 방법 3. 애드센스 수익 올리는 방법
08/12	10:00 ~ 11:50	대면 (덕정역 인근)	지금까지 해 온 스터디에 대하여 1. 블로그 글쓰기 실습 피드백 2. 소감 나누기 3. 앞으로의 목표

○ 활동 소감

▶이*영

교수님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평소 수업 시간에서는 배우기 어려웠던 디지털 마케팅 실무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스터디를 통해 배운 다양한 이론들을 실제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었던 점 또한 굉장히 유익했다.

▶박*선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스터디가 아니라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터디였어서 교수님의 아낌없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디지털 마케팅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사용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숙하게 알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 매주 진행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원분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뜻깊었던 스터디였습니다.

▶오*혜

여러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하고 있던 생각은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면서 인기가 많아지도록 사람들을 영상으로 설득해야지'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새롭게 깨달아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시간에도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이번 방학 소모임이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인턴 등 여러 실무 활동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팀명 : BIPS

- 학과: 바이오공학과
- 지도교수: 정*형
- 팀원: 박*연, 박*희, 홍*라, 김*, 조*지
- 학습과목: 대식세포 활성화기반 면역조절 신규물질 개발
- 학습장소: CBC
- 학습 기간: 2022.08.04. ~ 2022.08.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8/04	10:00 ~ 12:00	CBC	48-well plate에 cell seeding 프로토콜 회의
08/05	10:00 ~ 12:00	CBC	48-well plate에 cell seeding 프로토콜 회의
08/08	10:00 ~ 12:00	CBC	seeding한 cell에 LPS 농도별로 처리 프로토콜 회의
08/16	9:00 ~ 10:00	CBC	NO assay와 subculture한 cell media
08/17	10:00 ~ 12:00	CBC	change 진행
08/18	9:00 ~ 10:00	CBC	프로토콜 회의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방학 중에 교수님과의 소모임을 통해 방학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깊이 있고 심화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 병행으로 인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소모임을 할 수가 없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연구 활동을 위해 회의를 하고 시간을 정하는 과정부터 만나서 실험하기까지 학기 중보다 굉장히 수월했다. 실험과 관련된 이론 지식과 논문을 직접 찾아보고 교수님께 여쭙어보면서 실험과정, 시약의 용도, 실험원리, 사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수의 인원으로 소모임을 진행하니 개인이 가진 궁금증을 질문하기 용이하여 실험을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혼자 만들어본 96 well plate 디자인과 프로토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직접 찾아보고 논문 공부를 하며 실험에 참여하는 횟수를 늘리고 노력을 많이 들일수록 자신의 실험능력과 정보가 쌓여가는 것이 느껴져 부듯하고 만족스러웠다. 자신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분이 생겨 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이 활동은 무엇보다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 향상은 물론이고 동료들과 협력하고 실험 결과와 시도를 공유해서 함께 공부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혼자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도 팀 미팅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 한다. 소모임 활동은 종료되더라도 우리의 연구 활동은 계속될 것이며 발전할 것임을 확신한다.

2022학년도 1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발행일 2022년 8월

발행인 김 억 환

발행처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 화 : (031) 850-8949~51

팩 스 : (031) 543-2397

이 메 일 : chactl@chamc.co.kr

홈페이지 : <https://ctl.cha.ac.kr>

인 스 타 : chactl_voice